

투자심리 최고조, 실탄 장전... 기회 엿보는 개미들

4일 유가증권 매수 1.7조 '역대최대' 신용잔고 두달만에 다시 9조 돌파 3월 말 6.4조 대비 40.8%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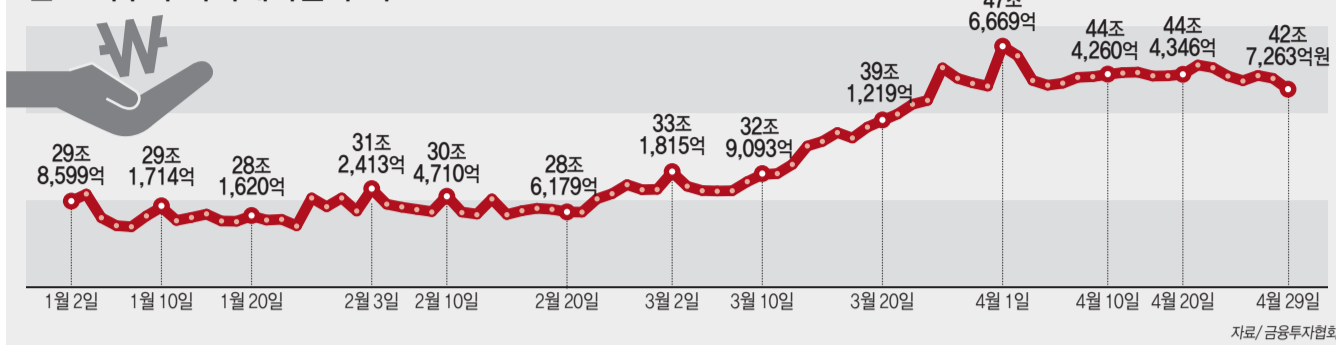
주식 투자 대기자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개미(개인투자자)들은 투자 실탄을 쌓아놓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라고 조언한다. 본격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시작되는 2분기 실적을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는 분석이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증시 고객예탁금은 42조 7263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58.2% 늘어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1월 고객예탁금이 47조 6669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객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맡겨놓은 자금이다. 혹은 주식을 판 뒤 찾지 않은 돈으로 증시

연초 이후 투자자예탁금 추이



대기 자금으로 여겨진다. 즉, 여전히 개미들의 투자 실탄은 넉넉하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개미들은 1조 7000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역대 최대 순매수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가 관련 집계를 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신용잔고는 한 달째 우상향 중이다. 지난 29일 신용잔고는 9조 434억원으로 두 달만에 9조원을 다시 돌파했다. 3월 말(6조 4207억원)과 비교하면 40.8% 늘었다.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신용잔고도 증가 추세다.

올해 처음으로 주식 투자에 도전한 투자자 A씨는 "주변에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면서 "여유 자금을 모두 증권사 계좌에 넣어두고 기회가 되면 적극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게시판에는 '삼성전자가 4만원 초반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풀매수', '코스피 1800 이하는 레버리지(상승시 2배 수익) 기회' 등 여전히 투자 심리는 최고조 수준이다.

또 지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

기, 금융위기 당시 국내 주식을 끌어담은 외국인이 결국 큰 차익을 거둔 것이 학습효과로 작용해 투자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금융위기 시기와 비교해 국내 우량주는 대부분 큰 폭 상승했는데 2008년 10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삼성전자는 453.7%, 코스피는 100.3% 상승했다.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아직 투자를 결정하기엔 이르다"는 평가다.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은데다 최근 한 달간 상승폭이 가팔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어려울 것이라 분석이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은 "빠른 반등세는 부담이다"면서 "현재 저점 대비 25% 이상 상승한 상황인데 과거 사례를 비추어보면 급등 후 3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6% 내외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 팀장은 "이익 추정치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지수에서 적극 매수보다는 보유 관점 접근이 합리적이다"면서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는 시점에 진입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 과거 이익 추정치 반등 이후 투자했을 때 2009년 36%, 2016년 22%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등추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3월 이후 실물경제에 쏟아진 정책이 현재 한국기업의 가치를 이전보다 레벨업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면서 "반도체 경기도 빠른 회복이 시급하며, 성장이 정체된 산업 및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을 추격하며 그 가치를 반영해야 추세적인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북적이는 어린이대공원 시민들이 어린이날인 5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황금연휴를 만끽하고 있다. /뉴스

똑똑한 '동학개미' 우량주 끌어 담았다

'셀 인 메이' 투자전략 변화

5월 첫 거래일 삼성전자 5089억 매수 우량주 지수 하락에 저가매수 나서

순매수액 2조 '인버스' 상품은 매도 기관·외국인 매수에 가격 일제상승

오랜 증시 격언인 '셀 인 메이(Sell in May·5월에 팔아라)'를 의식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전략에 변화를 둔 정황이 포착됐다. 계절적으로 5월에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미국이 코로나19 책임을 두고대(對)중 관세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2차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부각된 점 등도 시장에 단기적인 조정기가 올 가능성에 무게를 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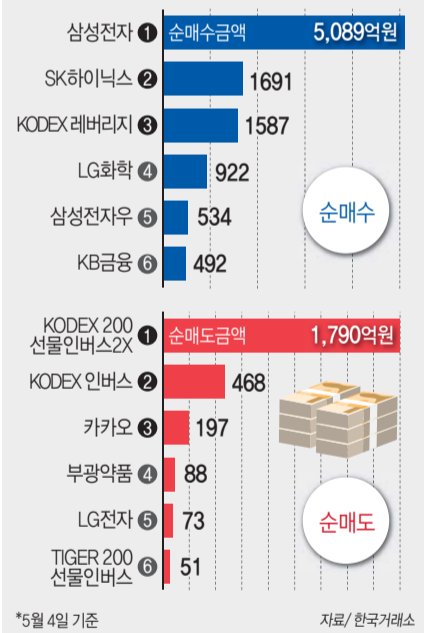
개미들은 최근 한동안 외면했던 우량주에 몰려갔다. 황금연휴가 끝난 후 2차 상승의 갈림길로 평가됐던 5월 첫 거래일(4일)에 5089억원 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였다. 두 번째로 많이 산 SK하이닉스(1691억원)의 3배 이상을 끌어 담았다.

KODEX 레버리지(1587억원), LG화학(922억원), 삼성전자주(534억원), KB금융(492억원) 등이 순매수 상위종목에 올랐다.

연휴 시작 전 3일만장이 열렸던 지난 주와 정반대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개인 순매도 종목 1·2위에 올랐다. 각각 2324억원, 1092억원씩 순매도했다. 지난 4월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과정을 거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망한 개별 종목이나 테마 쪽으로 자금이 향했던 상황에서 반등 가능성이 커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형주 쪽으로 다시 자금이 쏠렸다. 지수 상승을

개인 투자자순매수·순매도 상위종목



*5월 4일 기준 자료/한국거래소

광약품(88억원), LG전자(73억원), TIGER 200선물인버스2X(51억원), 호텔신라(40억원)도 순매도 상위 종목에 올랐다.

개인의 매도세에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끌어 담으며 인버스 상품은 일제히 뛰어 올랐다. 특히 일명 '곱버스'로 불리는 인버스2X의 강세가 돋보였다. 이날 TIGER 200선물인버스2X는 전 거래일보다 445원(6.59%) 오른 7195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른 인버스2X 상품 역시 비슷했다. ARIRANG 200선물인버스2X(6.35%), KBSTAR 200선물인버스2X(6.31%), KOSEF 200선물인버스2X(6.2%), KODEX 200선물인버스2X(6.01%)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인버스 상품을 짧은 기간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유효해 보인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현시점 대비 10% 내외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선 주가 급등에 따른 피로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가 상승 탄력이 둔화하면서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의 비판론에도 IT주로 대표되는 언택트(Untact) 트렌드 관련주를 눈여겨보라는 조언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업종들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IT는 이전보다 더 집중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4차 산업혁명 사이클 속에 정책·사회변화가 가세하며 차별적인 수요·이익모멘텀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언택트 확산은 결국 첨단 IT 기기와 반도체 수요 증가를 가속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태화 기자 avin@

1분기 韓 조선업 수주 81% '뚝'

수주 선박수 13척, 수주액 77% 감소 올 수주부진 2년후 일감부족 이어져

국내 조선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또 다시 수주 부진에 빠졌다.

지난해까지 액화천연가스(LNG)선 수주 증가로 업계에 훈풍이 불었지만 코로나19로 세계 신조선 시장의 부진이 확대되면서 2016년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 1분기 수주는 전년 대비 80 이상 급감한 가운데 목표치에 견줘서는 5% 안팎에 머물렀다.

조선업의 특성상 수주에서 건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수주 부진은 2년 후 일감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관망세가 짙어지는 하나, 신규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비해 일감을 배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5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신조선 수주량

은 전년 동기 대비 81.1% 감소한 36만CGT로, 선박 수는 13척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수주액은 77.2% 감소한 10억 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대형 3사만 떼어놓고 보면 올해 1분기 수주 실적은 연간 수주 목표의 5~6%선에 머물렀다.

1분기 수주량은 수주절벽이 일어났던 2016년 1분기보다 약 76% 많은 수준이나 2016년 분기 평균 수주량에는 미치지 못한다. 분기 실적으로는 9·11사태 직후인 2001년 4분기, 수주절벽이 있었던 2016년 1분기, 금융위기 충격이 본격화된 2009년 2분기에 이어 최근 25년래 4번째로 부진한 성적이다.

한국 조선업계는 올 초만 해도 수주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수주 절벽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우려와 유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선주들이 선풍 대형 선박 발주에 나서지 못하며 선박 발주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